

- 1、教会에 革新을
- 2、社会에 變革을
- 3、世界에 所望을

목자 없는 양

마 태 9장 35~38

김 덕 성

예수께서 갈릴리 지방을 순회하시면서 전도하셨읍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시며 ①여러회당에서 가르치시고 ②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③ 모든 병들고 허약한 사람들을 고쳐 주셨읍니다

예수님의 생애(生涯)의 본질을 나타내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을 고쳐 주시는 등세가지 모양으로 일하셨음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순회하시는중 많은 무리들을 접촉하시고 예수님께서서는 무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지친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읍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읍니다 추수할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라고 청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4장23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시며 일을 하셨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이 뭉여 들기를 기다리신것이 아니고 밖으로나가 돌아다니면서 주의 보음을 전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전도는 오늘날의 교회의 가져야할 자세와 방향을 지시하여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사람들도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의 진리를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 자라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여 그들이 회개할것을 촉박 하였으며 병을고쳐 주심으로 각사람의 번민에 대처하는 선한 목자로써의 직책을 잘감당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군중들이 모여드는것을 보시고 군중의 상태를 가장 인상적인 말씀을 사용 하셨습니다 「고생하며 지친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읍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고생한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지친단 말로도 번역할수있고 또 지친다는 말로도 번역할수가 있는 말입니다 고생한다는 말은 가족을 벗기고 토막토막썰은 시체 잔인한 남자에게 약탈당한 사람 무자비한자에게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을 가르침이요 「지친다」는말은 에리메노이 라는 말로 사용되어 있는바 「너머진다」는 뜻도 있고 찢기고 지친진 양들이 자방으로 갈광질광 흩어지며 마지막에는 기진맥진하여 너머지는 양의 모습을 말한것입니다 즉 치명상(致命傷)을 받고 넘어져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군중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읍니다 원어에는 가장 강한 뜻을 표하는 「불쌍히 여긴다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스쁘랑그나」 즉 배(腹)라는 말에서 나온 어구로 마을속에서부터 불쌍히 여긴다 「동정」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때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민중에게 살길에 대한 힘을 주지못하였고 율법에 관한 전문적인 변론으로 민중을 당황케할뿐이 였고 그들을 위로하거나 도움을 주지못하였으며 도저히 율법에 대한 무거운것을 지우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읍니다 추수할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라고 청하라」고 하셨습니다 추수는 거두는 사람이 없으면 할수없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였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것은 주님의 뜻이 었읍니다 그럼으로 전하는 사람이 필요로한것입니다 기도하는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기를 매일기도합니다 하고 말하지만은 행동이 따

르지아니하는 기도는 무익한것입니다

우리들은 신앙을 행위에 보이지 아니하면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꿈은 모든 사람이 거두는자가 되는것이요 선교사가 되는

1970년 5월 여전도회 월례회를 위하여

영혼의 양식 5월의 표훈

잠언22:6, 요한1:35~42

따사로운 햇빛아래 대자연이 고운 초록빛으로 단장하는 이때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서는 여러가지 즐거운 행사로 분주해 집니다 어린이주일 어머니주일 등 꽃을 만드려서 꽃아주는 기쁜 계절입니다 어머니날은 미국의 자비스여사가 1906년 5월에 별세한 어머니 1주기에 친구들을 청해 기념예배를 드린 것으로 시작하여 1914년 미국의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공포했고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 정부에서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반포했습니다 이와같이 어머니의 노고를 위로하고 치하하는 배는 거기에 또한 중대한 책임이 깃들여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가정에서 시작되며 구약의 지인에 의하면 지혜도 집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지혜를 배워 일생의 지프로 삼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통하여 우리는 이스라엘백성들이 얼마나 가정교육에 철저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경건의 법도를 지키는 것을 전생활의 천직으로 알았으며 그들의 중요한 관심은 오직 자녀를 전하게 교육시키는데 있었읍니

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녀교육을 소홀히 하는 부모는 「자녀를 매장하고 있다」라고 일러왔읍니다 큰 건물이 하로아침에 이루어질수 없듯이 참으로 위대한 인물은 어릴때 가정에서부터 그의 키와더부러 부모의 좋은 영향을 받고 그 성품이 점점 고상하게 자라나기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것은 늙어도 변하지 않습니다(잠언22:6)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잠언1:7)는 잠언에 잇달아서 우리들의 다채로운 5월 가정의 달 모든 잔치의 근본목표를 우리가족이 다함께 주님앞에 나와 온전한 믿음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배에 두고있습니다 다시말하면 번거롭고 팽창한 것에 앞서 우리의 눈을 가까운 내 주위에 세심하게 돌려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중 안드레는 별로 드러나게 큰 이름을 떨치지 않았으나 예수님의 주요제자의 한사람입니다 그 까닭은 그가 본래부터 신실한 개인전도자였다는배에 있습니다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했다는 사실은 적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한 집안에 살아온 형제였읍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집식구를 전도하는것보다 멀리 해외의 이방

인에게 전도하는 것이「훨씬 쉽다」고 말합니다 강단에서 설교할수는 있으나 자기자녀를 구원의 길에 이끌기가 몹시 어려운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전도 곧 부모 남편 아내 자녀와 형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모두가 그 필요를 통감하면서도 주저하게 되는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안드레는 그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훌륭한 본을 보여줍니다 그는 형제 베드로를 인도한것처럼 5천명의 군중속에서 도시락준비한 어린 소년을 찾아 예수님께 바치도록 하였습니다(요한6:8)

그 소년은 그때의 적은 점심밥뿐 아니라 그의 젊은 전생애를 주님께 바쳤음에 틀림없읍니다 빌립을 찾아온 헬라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간 사람도 안드레였읍니다(요한1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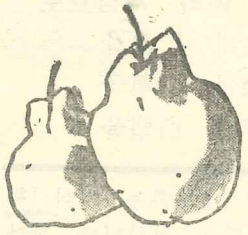
주님을 따라 나선 우리도 먼저 경건한 가정교육과 함께 우리의 가족과 친척들에게 복음을 생활로서 전파합시다

여기에는 정말 십자가의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어렵고 거의 할수없는 일이지만 능력의 주님을 힘입고 그 어른과 함께 정성을 다드려 행해봅시다 잠시 이 땅에서의 부모 형제 친지들과의 사별도 눈물로 대하거든..... 영원한 생명과 사망의 갈릴결에서 내 골육지친에 대하여 우리는 어찌 태연할수 있겠읍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일생을 바친 눈물의 기도는 마침내 멸망길에 헤매는 방랑한 아들을 생명길로 이끄셨으며 동시에 그 변화된 한 생명은 당신의 어두어진 사회와 역사에 빛나는 공헌을 하였읍니다 진실로 열심히 기도하는 어머니 아내 형제 자매들로서 이 5월의 신록을 한층 거룩하게 장식하며 영원한 소망중에 찬 수고를 계속합시다

× ×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감사 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태과동속의 여러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2면에 계속—



말세의 파수군은 외친다

이 사 야 21:11~12

김 관 옥

본문의 뜻은 ≪예들의 ≪말 광에 대한 뜻인 ≪예들의 ≪시대에 대한 질문을 파수군은 아침이 왔으니 밤도 오리라고 대답을 하였다. 이것은 ≪예들의 ≪말말 직전에 된 사실인데 예들은 ≪바벨론과 결탁하여 광대한 지역을 가지고 한때는 아침과 같이 찬란하였으나 ≪바벨론이 ≪바사에게 망하는 동시에 그 역과가 예들에게 미치게 될때에 된 일이다.

나는 이 사실을 가지고 시대의 종말인 오늘에 주님의 재림을 상징하고 말하려고 한다.

파수군은 아침이 온다고 외친다. 밤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파수군은 아침이 온다고 대답 하였다. 아침은 상쾌한 때이다. 24시간중에 아침처럼 좋은 때는 없을 것이다. 아침은 태양이 막 뜨는 광명한 때이다. 주님은 의의 태양이다. 나는 아침에 대하여 말하려 한다.

아침은 깨는 때이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엡 5:14). 또한 너희가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때가 벌써 되었으니 (로 13:11). 깨라는 말의 전제는 잔다는 말이다. 사람은 잘때도 있고 깰때도 있는 것이다. 잠자기만 하고 깨지 못하면 죽은 사람이고 깨기만 하고 자지 못하면 병신이다. 아침은 잘때가 아니요 깰때이다. 우리 신앙생활을 반성할때 시대적으로 과거 1969년의 밤을 지나고 70년의 명량한 아침을 맞이했으니 아침인 오늘에 깨지 못하면 죽은 신앙이다. 동전에 아침해가 뜨는 것처럼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의 오실때는 되었다. 이때를 당하여 파수군은 아침이 온다고 외친다. 심령이 죽은 상태에서 또는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 일어나자.

아침은 웃 입는 때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왔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깰때에 웃을 입는 것은 동서나 고금을 막론하고 일반이다. 깨어도 웃을 입지 않는 사람은 정신환자나 웃

이 없는 사람일 것이다. 우리는 실명한 옷을 찾아 입자.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옷이 있는가? (골 3:12).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울수 있는 흰옷이 있는가? (제 3:18). 때론 옷을 어린양의 피에 씻어 회개하였는가? (제 9:14). 어린양의 혼인에 참여 할예복은 준비되었는가? (마 22:12). 성도여! 신부여! 아침이 되었다. 때론 옷을 빨고 남루한 옷을 버리고 의로운 행실로써 깨끗하고 화려한 제사로 옷을 입고 어린양의 혼인때를 바라보고 기다리자.

아침은 준비하는 때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때에 인자 오리라. 일년의 기약은 봄에 있고 하루의 기약은 아침에 있다. 아침은 하루일을 준비하는 때이다. 농부는 씨를 준비하고 군인은 전쟁에 나갈 무기를 예비한다.

우리는 신령한 농부이다. 복음씨를 가지고 바람부는 것과 비가 오는것을 겁내지 말고 힘써 뿌리자. 눈물로 뿌린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우리는 신령한 상인이다. 땃냥중 두냥중 한냥중도 받았다. 땅에 묻지 말고 힘써 장사해서 많이 이익을 담기자. 우리는 싸우는 주의 군병이다. 무기를 예비 해가지고 싸움터로 나가자. 신령한 때와 의의 호심경과 화평한 복음의신과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당당히 싸움터로 나아가 승전고가

—1면부터 계속—

연약한 저희를 도우시자. 온전한 믿음 안에서 가족과 모든 친지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이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에 기록하신 하늘 뜻만 이루어지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읍니다.

—아 멘—

알림

1. 지난 3월 30일 판서지방예전도회의 시온합창단이

울릴때까지 힘써 싸우자. 파수군은 또 밤이 온다고 외친다. 아침이 있으면 밤이 있을것이다. 아침을 광명한 때라고 하면 밤은 후암의 때이다. 아침은 기쁜때라고 하면 밤은 고통스럽고 고난의 때이다. 파수군은 또 밤이 온다고 외친다.

밤은 어두운 때이다. 밤이 오르면 그때는 아무도 일 할수 없으리라. 지금은 시대적으로 밤이다. 양심의 불이 꺼지고 도덕의 불이 꺼지고 종교의 전기불이 고장이 생겨서 온 세상이 캄캄한 때이다. 사탄의 어두움의 권세는 의의 태양을 가리우며 이 사탄의 후암의 세력은 온 세상 종교계를 덮고있다. 신자의 심령도 교역자의 심령도 어두움의 세력의 지배를 받고있다. 그 증거는 진리의 후백을 가리지 못하는 연고이다. 흰것도 검은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심령상태가 후암의 지배를 받고있는 증거이다. 이 단을 따라 가면서도 진리라고 주장하고 사탄의 역사를 보기도 성신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심령이 혼돈하고 캄캄하여져서 분별력을 잃어버린 증거이다.

밤은 도적이 횡행한다. 도적은 빛을 싫어하고 밤을 좋아한다. 이유는 밤은 자기의 정체를 가리우고 도적질 하려는 때문이다. 도적은 모든 사람의 자는 때를 이용한다. 즉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시대의 밤을 이용하여 출몰한다. 우리는 깨어서 틈을 타지 못하게 방비해야 한다.

선교기념사업위원회의 초청을 받아 본국의 국군 위문과 순회공연을 위하여 서울로 출발 하였읍니다.

2.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서울아카데미하우스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여성신도회의 임원들과 재일대한국교회 여성전도회 임원들과의 합동수양회에 참석차 본 연합회 임원들이 한.기.장.여신도대회의 초청을 받고 출발하게 됩니다.

이 상



영적 생활

— 그 잊어버린 것을 찾아서 —

이 말은 너무나 옛날말이 되어서 이시대에는 맞지 아니한 이야기라고 할 사람도 있을것이다. 오늘날이라고 하는 이때는 너무나 과학적 물질적인 시대가 되어서 이러한 말을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인 하나님을 믿는 생활을 하는 우리로서는 이 영적인 생활을 제외 하고서는 우리의 생활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믿는다고 하는 신자 우리 뿐만이 아니고 믿지아니하는 미신자 일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지배를 떠나서는 전 인류의 살아갈 길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이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한다. 영의 생활이 없이 아무리 물질문명의 발달과 편리한 생활을 한다면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을 것인가. 많은 환자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숫자는 정신과에 출입하는 환자가 많다는 것을 보아도 알수가 있다. 전쟁이 없

는것이 평화가 아니고 전쟁이 없는 나라의 부패와 주정과 부랑 시민이 많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모두 자기 생활의 기본이 없기 때문이다. 쉽게 속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도 이 영적인 생활을 무시하고 물질적인 생활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니 언제 내 영혼이나 하나님을 생각할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겉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는 물질에 도취하여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험에 빠져있읍니다. 그것이 즉 영적인 생활에서 이탈된 것입니다. 이 옛날 그 옛날 같은 이 영적생활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바이다.

(월)

파수군은 돌아오라고 외친다. ≪너희는 돌아올찌니라 ≪파수군의 외치는 권고는 돌아오라는 것이다. 회개는 돌아오는 일이다. 아침이 왔으니 밤도 올것도 사실이다. 의의 태양을 맞이 하려면 하나님 께로 돌아가는 길 외에 없다. 당자가 깨닫고 발길을 돌리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당자에게 자는 길이요 행복의 결음이다.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가 돌아오기를 고대하신다. 우리는 자기 자체와 처지를 발견하여 진리의 바른 로선으로 돌아서자. 우리는 낮의 아들이요 밤의 아들이 아니다. 곧 이것이 파수군의 외치는 결론이다.

(대관교회 장로)

관서지방예전도회

시온 합창단 모국 방문

관서지방예전도회가 조직하고 있는 시온합창단 (당장 김 주일)은 전부터 모국방문 순회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지난 3월 30일부터 3일간 서울을 순회하고 돌아왔다.

동 합창단은 30일 서울의 각교회 신도집에 민박을 하고 31일은 기독교방송과 중앙방송텔레비전에 출연했다. 이날저녁은 와이즈메네트크럽의 초대를 받고 저녁을 같이했다. 다음날 4월 1일은 육군사관학교와 이화여대를 방문하고 저녁에 영락교회에서 공연하고 함께 예배를 보았다. 이것으로 공식

공연을 마치고 각자 자유로운 행동으로 돌아왔다. 일행의 멤버는 다음과 같다.

引率團長—金主日 指揮者 金瓊燦 總務—金玉禮 伴奏者—金貞姬 合唱團員—金宗淑, 朴福得, 姜奉善, 丁水井, 康淑子, 崔玉童, 朴貴珠, 李英馥, 宋德順, 朴文子, 朴末善, 朴貞姬, 徐日順, 鄭三順, 金鍾善, 崔正子, 金明蓮, 池蓮華, 韓鳳愛, 李澤順, 李信順, 文沙羅, 李早苗, 金恩順, 俞花子, 金龍子



持ち札を

田 永 福

1970年は70年代の第1年として世界が激動の年と言う緊張感を持ってこの年を迎えた。激動と言う予感の底に破壊的な重苦しい沈黙物の浮遊するのを感じる。激物に壊滅的なものと、建設への革新的なものがある。必竟ずるところ歴史は我々の手で織りなして行くのだから、この年を新しい革新の年として建設へと飛躍する歴史の担い手とならねばならない。60年代の終結は、紛争に終わった。大学問題も、一つとして解結を見ることが出来ないで新しい70年代へと越年して仕舞った。紛争に終わったその経緯と性格を分解すれば、批判と不平に始まり、互の攻撃と闘争に終わったのみで、大学が、教会が何であるか、何うあるべきか何うすべきかと言う答えを聞くことができず、持ち札を出し合うことができなかった。それ

は持ち札を持ち合せていなかったのである。答えを持たぬ批判であり、解結のない紛争であり、建設のない破壊であった。そして、揺れに揺れ荒れに荒れ、満身創痍のままで終り仕舞った。全く無暴そのものであった。許されない歴史的罪悪であった。人間形成と人間歴史創造への敵であった。不平も時として益あり、反省なかるべからずである。批判こそ進歩への不可欠である。紛争も又時によしとしよう。然し只それのみであって、只それのみに終る時、害あって益なく、破壊あって建

設なく、生なくして、死あるのみ。

1970年を生きる年として、建設の年として、進歩の年として、新しい歴史創造の年として、世界平和と人間幸福への年として、絶望から新しい希望への年として「不平を恥じ、批判を捨て、紛争を終息し、各々が真摯に答えを考え、答えを問い、答えを研究し、自分の持ち札として、充分なものを用意し、それを受肉させ、体を張って革新から建設へと一歩一歩、歩み出さねばならない。

在日韓国人のための

闘争の神学 - 1 -

金 承 俊

1.序「人間は生まれながらに人間として生きる権利があ

る。」これほど単純で、しかも深い言葉は他に見出し得ないように思われる。何故ならば、この言葉の裏には、いかに多くの、人間のその当然な権利獲得のための闘争の歴史が秘んでいるからである。この言葉に含む意味は、「人間は人間であって、それ以外の何ものでもない。」ということと、「人間は生まれた以上、人間として当然に生きるのである。」ということである。ところで、人間は人間であるというとき、人間という一存在が、他の人間という一存在を人間として認めてこそ、それが意味をもってくるということであるように思われる。つまり、人間を人間として認める人間だけが、自らも人間として認められようということである。このことを神学的に云うならば、人間は創造される時、等しく、土のちりで創られているということと、そこに、神の生命の息をその鼻に吹き入れられ、そこで始めて、肉と霊という分割されうものではなくて、完全な一個の人格ある「ネフエシヨ」(生きたもの)となったということである。

このように、根源的には、何ら上下の区別はなかったのである。勿論、機能に於ては、男と女という区別はあるのであるが、被造物として、神の前での完全平等性をもつものとして創られているのであ

る。すると、ここで問題が起ってくることは、それならば何故に、ある民族或いは個人は非常に優秀であって、ある民族や個人は劣るということがあるのか？人間の歴史が示すようにある民族は絶えず、リードをとるのに反して、何故ある民族は支配ばかりされるようになっているのか？このような問題は当然考慮すべき問題ではあるが、ここでは別問題であ故に他に譲ることにして、ここでは、在日韓国人について、その状況、その生きること、将来への指針、そして、その神学的根拠等を中心として見て行こうとするものである。われわれ人間は誰もが人間らしく、当然に生き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とを明白に自覚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このことが妨げられたり、差別されたりするときに争いが生ずるのである。同じ領域内に住む人間が、名称の違いや、政策等によって区別するものだとするならば、区別するのは、狭量な自己中心的存在であるのみならず、区別されるものに対して絶えず、争いと忿怒の念を注いで、平和を破壊するにいたるのである。すべての国民、すべての国家は人類が平和と安寧のうちに生きて行けるよう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ためには、すべての国家が、自国領域内に生きるすべての人間に対して、同じ人間として、公共の福祉に反しない限り等しく取扱って行くように努力して行くことであると同時に、疎外されている住民も等しく生きる為の闘いを推進して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し、そのような生きる為の闘争は保障されているのである。このような精神が世界人権宣言の目標として掲げられていたものと思われと共に、月にまで達した人間が、今や、人類の連帯感を更に強くしつつ、目ざしている目標ないしは流れと

いうものがこのようなものであると思うのである。このように人類が共通の目標へと向かい進んでいる時に、逆流するようなことが起っていないかどうかをわれわれ自身が注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ように思われるのである。そのような意味で、日本国々民と日本国政府当局が、日本に在住する少数民族や、更にすべての外国人に対して、同じ人間として、より門戸を開いた取り扱いをするようにと切願すると共に、そのための地味な学びと運動を展開することこそが、今後のわれわれの進むべき方向にならなければ、福音が本当に、受肉するとか、具体化することにならないように思われるのである。現実には本当に生きようとする時、そこは孤独との、苦悩の、悲しみと怒りの、闘争が限りなく動いて来るのである。われわれは長い間、ある枠の中でのみ生きて来た為か、頭や心が、立ち上がる時が来ている立って戦えと叫んでも、身体は動かなくなってしまったのである。絶えず、苦しみと悲しみの中へ自己を投げ込んで、十字架の重荷と悲しみを負い乍ら、しかも、絶えず闘って行こうとする「反抗的人間」の生が必要とされてきている。

われわれは、ここでもう一度、恐るべき旧約の復讐の神に返ろう。復讐の中の愛を見よう。罰して許し給うあの峻厳な神を見よう。

われわれは、現実の生活に慣れ切った為か、不正、誤り、偽り、謀略に慣れて、われわれが受けている、受けつつある不正や差別に対して、立ち向かえず、当然であるかのように甘受してはいないか？我々や相手が誤る時、抵抗や反抗こそが、我々や相手を目醒めさせる方法であって放置は激化になるからである。

(岐阜教会牧師)

印刷の仕事をしませんか

僑文社は在日大韓基督教会をはじめ、韓国人団体などの韓国文を主として、あらゆる印刷をしており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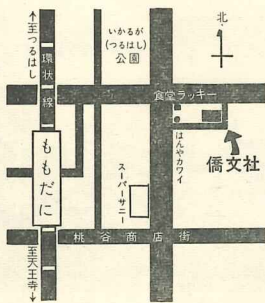
《資格》

★韓国人として自覚を持っている青年(夜間生も可) 日本人でも韓国に特に関心のある方なら可

★クリスチャン、または基督教に理解のある方

僑 文 社

大阪市生野区鶴橋南之町2-335
電話 716-5046



霊的な生活

—その失われたものを求めて—

目まぐるしく変化して行き、物質文明の極に達している今日、大昔のおとぎ話みたいな話をしていると笑われることであろう。しかし私は敢えてこのことを主張し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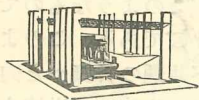
今日程ノイローゼにかかって精神科医にかかる人の多い時代はかつてはなかったと思う。それは、いくら文明が発達し、人間が便利な生活をするにしても、根柢にあって、私たちの生活を支えて下さる神より、たまわった霊的な生活をしない限り、どうにもならない問題だからである。信仰者として神を信ずる者でさえも、この神との深い交りである霊的な生活を無視している所に大きな問題があるわけである。

私たち、今一度自分の生活を振り返って見て、この失われたものを探し求めなければならない。戦争が現実におこってこないから平和であると思っていれば、大きなまちがいである。不正、不良、不腐等もこの霊的な生活の無視からおこっている。神を信ずる

と、信じないと関係なく、その生活のすべてが神によって支配されていることを忘れてはならない。近頃あまりにも、神を無視した言動が流行している神様によって、清められ、霊的な目覚めのある生き方をしている人が一体どれだけ私たちの周囲にあるでしょうか。あまりにもエゴイズムに流れすぎはしないだろうか。他を思い教会を思い神のことを思うようであって、実はその反対に走っている自己を見い出すのではなからうか、深い反省を要するのである。

霊的な生活の中で最も大切なのは、他人を批難するのではなく、自己を深く追求して行くことであり、神の前に立っている自分と罪との対決のために私はどうしたらよいのかというような深刻な自己反省が要求されるのである。この時に初めて、霊的な目が開かれて来るわけである。神との深い交りを今一度深めて行き度いものである。

(西成教会 金元治牧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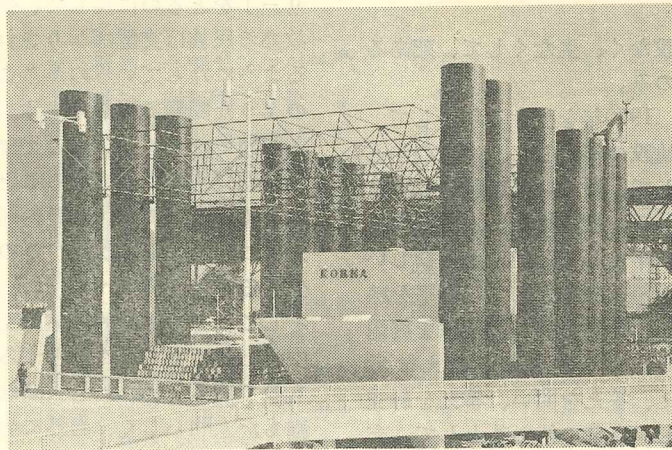


万博への目と心

田 永 福

万博が賛否両論を尻目に、国を挙げて、賑々しく開会された。一目で見て、大人のディズニーランドであり、巨大な見世物である。賛否の主唱するところ、何れにも耳を傾けるだけの理屈もあり、真剣さも伺える。万博は玩具的ではあるが世界の模型であり、平面的ではあるが今日の歴史の縮図であるから我々の信仰と宣教のために、見るべきである。キリストが山の上に立って世の栄華を見られて、これに屈するか、打ち勝つかの信仰の決断を示し給うたように。そして我々の宣教が今日の歴史の中に立っての宣教であることから万博によって世界を見、歴史を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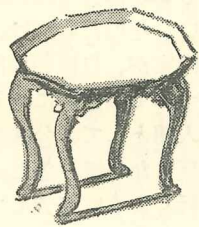
万博は文明の展示であると共に、人の展示でもある。テーマが人間の進歩と調和であり、万博の主人公は人間であるその真中に小さいながらも基督教館がある。復活のキリストが、今日の歴史の真中に立って居られるのであり、世界の人間の集る真中にキリストはお立ちになって、人間の生存の意義を知らしめんとし居ることが基督教である。H・コックスが「教会が世を捨てた時、神は教会を捨てられる」と言ったように我々には目と心を注いで、キリストと偕に、世界の人々へ語りかけ、対話と和解の役目を果たさなければならない。珍らしげに、アメリカ館、ソ連館の前で列をなしていた人々も段々と基督教館に向いつつある。人間の本当の歴史を示すものは、テーマ館の展示にあるのではなく、聖書にあることが少しづつつつて来たよう



である未来都市が、人間不在の空虚なものでないことを只一つ示しているのが基督教館である。深い意味も示さない原色の奇型な展示品に心疲れた人々が、静かな心の安らぎを取り戻すのが基督教館である。万博の中に基督教館があるのは、世界の歴史の真中に教会がある事を最も短的に示しているものである。

この万博は、1960年代のものであって、70年代のものではない。色々な企業館では余

り有為でない社員を万博係としてサービスさせていて、社では、万博より遙かなテンポで次から次へと新製品を造り出していると言う。万博も、既に去年のものであり、過去のものである。今日はもう明日へと急ピッチでエスカレーターしている時代である。我々も常に前へと前進し、キリストと共に歴史の先に立って、和解の業に励まねばならない。



韓国旅日記

- 3 -

吉田源治郎

至るところに十字架が
かがやく

私は鉄道沿線の至る所に教会堂が聳え、その尖塔が見られ、都会と言わず、村落と言わず、十字架が陸続として眺められる風景に驚いた。済州島の済州市（人口6万位）にも丘という丘の上に十いくつの会堂が建てられているし、

ソウル特別市の如きには600余の教会があるということであった。日本には新旧合せて信徒数104万余（1969年）だが、韓国には、キリスト教会数が7,700、信徒数は140万（1962年韓国文教部調べ）である。その後教勢は益々盛んであるから今日では教会数は9,500以上、信徒数とはるかに増加している筈だ。

堂々たる教会堂が都市の中心部にあることはすばらしい。ソウルの永楽教会は日曜礼拝に（3回に分れて）3,000人が集まり、総計9,000人の人々が日曜毎に教会に出入りしている。因みに永楽教会は済州市始め各地に同名称の教会を建てているのみでなく、海外（タイ国バンコック）に宣教師を派遣する外、老人ホーム、孤児、寡婦ホームを運営し、中学校、高校なども運営している。大邱にも会衆1,000人の長老教会には400人近くが集って来た。

また年間を通じて、毎朝4時半頃至5時から早天祈禱会が全国至るところの教会で開かれているという。私は全州に泊った日の翌朝、4時半頃、教会の鐘の音で目を醒した。

今一つ感銘の深かったのは、韓国教会のコワイアのすばらしかったことである。光州でも、済州市でもコワイアの美しかったことはいつ迄も私の心の底に残っている。

また韓国には何万部という週刊クリスチャン新聞及び相当のページ数をもつ「クリスチャン・グラフ誌」が月刊されている。

眼科医の立体農業

私は光州市で眼科医のドクトル・ホン（洪承敏氏＝同市在住）に出会った。氏は光州YMCAの政策委員長でもある。今日では、氏はむしろ立体農業の指導者として知られている。氏はかつて光州大学医学部に学び、その後、米国の大学に留学された。青年時代に賀川豊彦氏の「立体農業の理論と実際」に啓発され、6年前から食生活の改革を目標に光州の郊外、水北面に聖岩農場を経営、大学卒の青年をリーダーに10人が之れに当たっている。現在の規模は約130町歩（10年後には45万町歩に拡張）。そこには、松柏10,000本、銀杏2,000本、

くるみ2,000本、栗5,000本を植樹、地方を増す為には蓄産に努力。牛20頭、豚20頭、アヒル700羽、ミツバチなどを飼育している。私は洪先生宅でYMCAの金さんと共に昼食を頂いたが、それはすべて立体農業の献立であった。聞けば、聖岩農場では、いわゆる韓国食でなく、穀果、アヒルの卵、牛乳及び紛食を採用しているとのことであった。洪氏は眼科技術のちみつきを接木に応用し、品種改良にも努力しているという。日本にも立体農業の農園がいくつか試みられているが、いづれも、洪氏の農園とは比較にならない程の小規模である。

創世記のエデンの園は立体農園であったし、ヨハネ黙示録22章の記事は、いづれも樹木作物（ツリー・クロップス）を伝えているというのが賀川先生の見解である。その後人間が平面農業（米麦中心）に転業したことが大きな間違いだったというが、その立体農業論の荒筋である。

「川の両側には生命の木があって、12種の実を結び、その実は毎月みのり、その木の葉は諸民をいやす」（黙示録22章1～2）（つづく）

1970年度

試取公告

日時・1970年5月13日（水）
午前9時早稲
場所・京都市右京区西院矢掛町20 京都教会堂
（電話 311-5051）
牧師、講道師、長老、受試志願者は5月5日まで受試申請書所要書類を書記에게提出하시오

試取局書記 田 永 福
以上

在日大韓基督教会総会
試取局長 吳 允 台

教会の集会などにご利用を

教会の皆様には一泊2食付、サービス料などすべて込みで、¥1500.-です。
「ヘルストロン」保健装置を無料でご使用できます。
また、このルームにはキリスト教書籍を設置。

在日大韓基督教会 指定旅館

上 椿

代表者 金 京 秋

和歌山県西牟婁郡白浜町椿
電話 富田 (073991) 445~6
大阪案内所 大阪市北区曾根崎町2-21
電話 大阪 (06) 341-2162

